

두산 4위 탈환 승부수 '유희관카드' 통할까

8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 마지막 도전에 나서 광주서 KIA 맞대결...팀·유희관 모두 중요

두산 베어스의 베테랑 투수 유희관(34)의 어깨에 팀의 명운이 걸렸다. 유희관은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이날 경기는 유희관과 두산에 모두 중요한 경기다.

올해 9승을 기록한 유희관은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8년 연속 10승에 도전한다. 이날 승리투수가 되지 못하면 기록 달성은 실패하게 된다.

유희관의 10승 달성은 무난해 보였지만, 최근 7경기에서 1승4패로 부진한 성적에 올랐다.

유희관이 또다시 무너지면, 두산의 4위 탈환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유희관이 부진할 경우, 최원준, 김민규 등 선발 요원들도 불펜에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통합 우승 팀 두산은 우여곡절 끝에 6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

했다.

선발 마운드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했던 크리스 플렉센은 부상으로 두 달 가까이 공백이 있었고, 토종 선발이 영하는 마무리로 전업했다. 이에 두산은 선발진의 공백을 메우면서 시즌을 치러야 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두산에게 4, 5위는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다. 그러나 포스트시즌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4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4위를 노리고 있는 두산은 KIA전에 무조건 이기고, 30일 잠실 키움 히어로즈전에 승리해야 4위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두산은 산술적으로 3위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지만, 시즌 막판 2경기 승차를 역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두산이 노릴 수 있는 자리는 4위다. 4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에서 1승의어드벤처와 함께 홈 경기 개최권을 갖는다. 4위 팀은 1승만 해도 다음 스테이지에 진출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때문에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두산과 키움의 혈투가 예상된다.

두산은 KIA전을 이길 경우, 시즌 최종전에서 예시 라울 알칸타라를 투입해 4위 자리 탈환을 노린다. 알칸타라는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20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뉴스

SK 윤희상, 17년간 프로 생활 마무리...은퇴 선언

SK 와이번스의 베테랑 우완 투수 윤희상(35)이 17년 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뒤로 하고 그라운드에서 작별을 고한다.

SK 구단은 27일 "윤희상이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하기로 했다"며 "현재 어깨 상태로는 정상적인 투구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구단과의 면담한 뒤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창중과 선린인터넷고를 졸업하고 200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SK 지명을 받은 윤희상은 2020년까지 17년 간 SK에서만 뛰 '원 클럽맨'이다. 윤희상은 촉망받는 유망주였음에도 부상과 수술, 군 복무로 인해 2010년까지 1군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2011년 28경기에 선발 등판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10승을 달성한 윤희상은 2018년 불펜 투수로 보직을 변경하기 전까지 SK 선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윤희상은 2018년에도 46경기에 등판해 51이닝을 소화하며 1승 2패 7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5.12의 성적을 거뒀다. 그는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합류해 우승의 기쁨을 함께 만끽했다.

하지만 부상이 윤희상의 앞을 가로막았다. 2006년 한 차례 어깨 수술을 받은 윤희상은 어깨 부상



으로 인해 지난해 7월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투수에게는 치명적인 어깨 부상이지만, 윤희상은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8일 인천 두산 베어스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2018년 11월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6차전 이후 696일 만의 등판이었다.

이후에도 윤희상은 15일 삼성 라이온즈전과 21일 롯데 자이언츠전에 등판해 1이닝씩을 소화했다.

23일 1군 엔트리에선 제외된 윤희상은 결국 좋지 않은 어깨 상태 탓에 은퇴를 택했다.

1군 무대 통산 성적은 216경기 등판, 42승 44패 7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81이다. 그는 한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2018년)과 2번의 준우승(2011·2012년)을 맛봤다.

김미희기자

세인트루이스 매체, 김광현에 A학점... "잘 버틴 한해"

"가족과 생이별·새로운 문화 적응속에서 빛나는 활약"



세인트루이스 지역 매체가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올 시즌 활약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27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구단의 2020시즌을 평가했다. 이 매체는 프런트와 감독, 각 선수들을 A~F학점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광현에게는 A학점을 줬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김광현이 잘 버틴 시즌이었다. 김광현은 2020년의 대부분을 가족과 떨어져서 보내야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빛나는 활약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광현은 시즌 도중 심장경색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8경기에 등판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했다"며 "피안타율은 0.197에 불과했고, 7번의 선발 등판에서는 평균자책점 1.42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김광현이 포스트시즌 경기에 한 차례 등판해 3%이닝 3실점을 기록했는데, 당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김광현을 비롯한 젊은 투수들 덕분에 세인트루이스는 연인 더블헤더를 치르는 일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2019시즌을 마치고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김광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온

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막이 미뤄지면서 하염없이 개막을 기다리며 힘겹게 훈련을 이어가야했고,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하기도 했다. 시즌 개막 이후에는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 넘게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광현은 어려운 상황을 딛고 선발로 맹활약하며 내년 시즌 선발 한 자리를 예약했다.

선발 투수 가운데서는 애덤 웨인라이트가 A학점을, 다코타 허드슨이 A-학점을 받았다. 잭 플래허티는 C-에 그쳤고, 스프링캠프에서 김광현과 선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에게는 F학점이 주어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악재를 딛고 복귀해 세인트루이스 안방을 든든히 지킨 베테랑 포수 아디에르 몰리나도 A학점이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김광현의 영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단 프런트에는 C-라는 박한 학점을 매겼다.

반면 마이크 실트 감독에게는 A+를 줬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선옥기자

우승 없는 1위 최혜진, 타이틀 방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선 다해 플레이할 계획"

썸처럼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최혜진(21·롯데)이 다시 한 번 시즌 마수걸이 승리를 위해 뛰는 중이다.

최혜진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링크스 골프클럽(파72·6684야드)에서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16번째 대회인 SK네트웍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8억원·우승상금 1억6000만원)에 출격한다.

최혜진은 지난해 5승을 쟁겨 KLPGA 투어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하지만 올해는 우승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13개 대회에 출전해 12번이나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적으로 대상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트로피는 없다.

작년 이 대회에서 시즌 5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대상, 상금왕, 다승왕 등극을 확정짓는 최혜진은 좋은 기억을 살려 기필코 첫 승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최혜진은 "타이를 방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잡지 못해 솔직히 아쉽움이 크다"면서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플레이할 계획"이라고 했



고 "컨디션이나 샷, 퍼트감이 나쁜 편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잘 안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아쉽다"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소미는 "많은 분들이 우승 직후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셨다"면서 "2주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긴장하면서 플레이하고 톱10을 목표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겸손한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정기자

다저스, 32년 만에 한 풀었다...통산 7번째 WS 우승

탬파베이, 창단 첫 WS 우승 좌절...최지만, 2타수 무안타



LA 다저스의 무키 베츠가 27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월드시리즈 6차전 8회 말 선두타자로 나와 1점 홈런을 치고 환호하고 있다.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감격의 월드시리즈(WS) 우승을 차지했다.

다저스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

에서 열린 월드시리즈(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1988년 이후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었던 다저스는 32년 만에 한을 풀었다. 통산 7번째 월드시리즈 왕좌에 올랐다. 다저스의 무키 베츠는 역전의 신호탄이 되는 2루타를 날렸고, 8회말 솔로 홈런을 쏴아 올려 우승에 일등공신이 됐다.

알렉스 우드와 빅터 곤잘레스 등 다저스 불펜진은 무실점 계투를 선보여 우승을 이끌었다. 탬파베이는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렸지만, 타선이 침묵하면서 고개를 떨쳤다.

승리가 간절한 탬파베이가 선취점을 올렸다.

탬파베이 2번타자 랜디 아로자레나는 1회초 1사 후 다저스 선발 토니 곤솔린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려 기선 제압에 앞장섰다. 이후 눈부신 투수전이 펼쳐졌다.

탬파베이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5회까지 1안타만 내주며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다저스 선발 곤솔린은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다저스는 철벽 계투진을 앞세워 추가 실점을 막았다. 월드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내려고 총력전을 펼친 다저스는 6회말 공격에서 오스틴 반즈의 안타로 상대 선발 스넬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이후 무키 베츠가 2루타를 날려 득점 찬스를 잡았다. 다저스는 곧바로 닉 엔더슨의 폭투를 틈타 동점을 만들었고, 코리 시거의 1루 땅볼 때 베츠가 홈을 파고 들어 역전에 성공했다. 다저스 베츠는 8회 2루 홈런을 날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홀리오 유리아스는 2%이닝 무안타 4탈삼진 무실점 패투로 월드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냈다. 탬파베이 최지만은 1루수 겸 1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비랑 끝에 몰렸던 탬파베이는 6차전에서 최지만을 선봉장으로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기대했던 최지만의 장타는 나오지 않았다. 최지만의 올해 월드시리즈 타율은 0.111이다.

뉴스

KIA, 오늘 2021년 신인선수 입단식



지난 9월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 타이거즈가 이의리(광주제일고)를 1차 지명하고 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KIA 타이거즈 2021년 신인 선수 입단식이 오는 29일 오후 4시 20분 광주광역시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열린다.

입단식에는 이화연 대표이사과 조계현 단장을 비롯한 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2021년 신인 선수들의 입단을 축하할 예정이다.

입단식은 신인 11명에 대한 소개와 유니폼 착용식, 꽃다발 및 기념품 전달 등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입단식을 마친 신인 선수들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동행 매트 리얼리티스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상견례를 하고,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나와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의리, 박건우, 장민기 등 신인 선수 11명은 KIA 유니폼을 입고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내년 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미희기자